

## 양산체제구축 옥내용 광Cable 공급

###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적극적인 판매망 구축

광주첨단광산업단지에 위치한 글로벌광통신(대표 박인식 <http://www.glights.com>)은 옥내용 광케이블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광산업의 선두주자로 2001년 8월 자가공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적극적인 판매망구축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광통신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업체로 지정되어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재석박사와 공동으로 제품의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박사급 연구인력을 영입하여 신제품연구개발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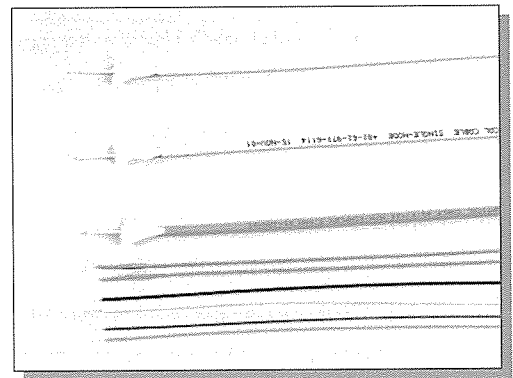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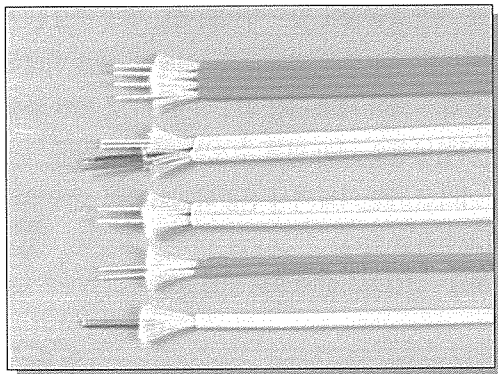
또한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두어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으로 세계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므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인식 사장은 “글로벌광통신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1년 힘차게 출발한 회사입니

다. 현재 광통신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 광부품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수요는 대부분 수입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초산업 육성을 위해 저희 회사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광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및 세계 여러나라에 옥내용 광Cable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 회사의 사업성 및 제품의 독창성, 우수성을 인정받아

광케이블은 사용장소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된다. 옥내용 케이블은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가 요구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글로벌은 싱글모드 및 멀티모드 광섬유를 이용하여 optical cord, distribution cable, breakout cable 및 hybrid cable, POF cable 등 옥내용 광케이블만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가격, 신속한 납기, 완벽한 품질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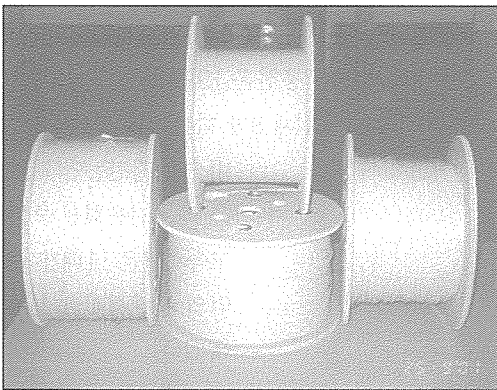
▲ 글로벌광통신이 공급하고 있는 광케이블 제품들 ▲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 벤처기업으로 평가받아 회사의 사업성 및 제품의 독창성,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그동안 진행해오던 산학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사업초기에는 국내판매에 주력하고 차츰 해외수출에 비중을 두고 나아갈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ISO인증규격을 획득하였고 해외인증(UL)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각종 국내외전시회 참가, 해외영업망 구축에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글로벌광통신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신소재인 플로린을 함유한 폴리 아릴렌에테르설폰 및 폴리아릴렌에테르설파이드,

Plastic Optical Fiber Cable(POF), Optical Fiber & Wire Unification Cable, Hard Polymer Clad Silica Fiber Cable(PCF)을 특허출원중에 있다.

올해 62억원, 2003년 100억원, 2005년 300억원의 연간 매출이 예상되는 이 회사는 특히 생산설비 개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상품 또한 타사제품에 비해 인장강도, 내구성 등이 뛰어나 수입에 의존했던 광통신 부품의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신제품개발에 앞장서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취재 / 한국광산업진흥회 기획홍보팀>